



피우진 보훈처장 광일보훈대상 시상 “나라 위한 헌신 감사합니다”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14일 광주시 광산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이 끝난 뒤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김여송 광주일보사 사장(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앞줄 다섯번째),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광주·전남 6만 치매환자 관리 ‘청신호’

文정부 보건의료 정책 1호 ‘치매 국가책임제’ 윤곽

사회적 인프라·환자 보호 경제적 부담 크게 줄 듯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6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광주·전남지역의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환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데다 치매 유병률도 높았던 만큼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 초기 발견 등을 통한 예방 관리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제도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광주의 치매환자 숫자는 1만7000여명, 전남은 4만6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광주와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치매 유병률이 10% 이상인 점을 감안해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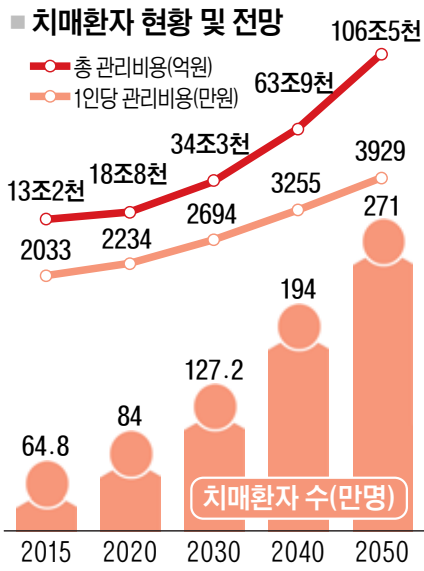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치매환자 숫자가 이처럼 6만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인데도 치매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치매지원센터는 47곳으로, 이 가운데 25곳이 서울에 집중됐다. 이어 경기와 인천 각 5곳, 대구 4곳, 전북 3곳, 울산 2곳, 부산과 세종, 충남이 각각 1곳으로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마저도 국비 지원이 아닌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치매관련 예산 202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기존 47곳에 불과했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05곳 증설, 총 252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전국 시·군·구 모든 지역에 치매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광주는 5개 자치구에, 전남은 22개 시·군에 각각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센터 1개소 설치비와 운영비 등 7억5000만원의 국비가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 중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센터에서 치매예방부터 교육, 조기 검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맡게 된다.

이번 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현재 시립요양병원 2개소에 197병상의 치매전문병동을 운영중이다.

정부는 기존 치매전문병동 외에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전문병동을 설치하는 데 600억원을 투입한다. 따라서 광주 시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의 병상도 크게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구성, 치매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존의 조례 등을 손질해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찬주 ‘그리스인 조르바를 찾아서’ 아킬레우스를 연모한 왕후 ▶18면

##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文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제2국무회의 헌법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와 관련,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고 하면서도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 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창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도지사, 류승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날엔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부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감사원, 영산강 등 4대강 감사 착수

정책 결정부터 성과 분석까지

감사원은 국토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는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가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일 목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뒤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

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번주 중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설치감사를 한다. /연합뉴스





雪花秀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S  
윤조에센스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 02-541-9270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